2015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1. 다음 글에 나타난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 할머니는 밥과 세 가지 반찬, 된장국이 나오는 백반을 천 원에 팔아왔다. 이 밥상은 주로 끼니를 거르기 쉬운 노점상이나 독거 노인을 위해 차려졌다. 할머니는 적자를 봤지만 그만두지 않았다. 어려웠던 시절, 남들에게 받은 도움을 다른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웃 상인들이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①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 절대자의 섭리에 따른다.
- ② 자발적인 동기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실현한다.
- ③ 다양한 도구를 제작하여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한다.
- ④ 스스로 창조한 놀이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 ⑤ 자연의 인과 법칙에 순응하여 마음의 평온을 지향한다.

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 문제: (가), (나) 사회사상의 특징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가) 인간은 행위와 실천에 있어 본질적으로 서사적 동물이다. 개인 의 삶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으며,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역사로부터 도출된다.
- (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그리고 소유물에 위해(危害)를 가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 관한 한 자신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 학생 답안

(가), (나) 사회사상의 특징을 비교하면, (가)는 □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며, □ 개인은 소속된 자아로서 공 동선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나)는 □ 공동체의 가치 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공동체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한편 □ (가), (나)는 모두 공동체를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1 7

20

3 🗈

42

(5) (1)

- 3.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거나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이렇듯 자신을 이겨예를 회복해야 한다.
 - 을: 예는 성인(聖人)이 제정한 것이다. 성인은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僞]를 낳고, 인위를 일으켜 예의를 낳고, 예의를 일으 켜 제도를 만들었다.
- ① 갑은 통치 수단으로 법(法)과 술(術)을 강조한다.
- ② 갑은 인의(仁義)를 해치는 통치자의 교체를 인정한다.
- ③ 을은 인간의 타고난 도덕성이 확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④ 을은 무위(無爲)의 삶이 실현되는 이상 사회를 추구한다.
- ⑤ 갑, 을은 바람직한 통치를 위해 군주의 도덕성을 강조한다.

4.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덕과 악덕은 이성을 통해서는 발견될 수 없다. 우리가 덕과 악 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감정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오히려 느껴진다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 ① 오직 감정만이 도덕적 실천의 동기가 될 수 있다.
- ② 도덕적 덕은 이성이 감정을 지배할 때 느껴지는 것이다.
- ③ 이성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④ 선악은 인간의 감정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다.
- ⑤ 공감을 통한 사회적 유용성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5.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제자: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경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스승: 탐욕[貪]이 영원히 사라지고, 분노[瞋]가 영원히 사라지고, 어리석음[癡]이 영원히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네.

제자: 그러한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

- ① 유일신(唯一神)이 정해놓은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네.
- ② 무지(無知)를 깨달아 악한 본성을 고쳐 나가야 한다네.
- ③ 팔정도(八正道)를 수행하여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네.
- ④ 오온(五蘊)이 영원함을 자각하여 윤회의 삶을 반복해야 한다네.
- ⑤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불변의 나[我]를 정립해야 한다네.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6~7]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행복한 삶에 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 ② 갑은 도덕적 진리가 주관적이면서 상대적이라고 본다.
 - ③ 을은 덕에 대해 알아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품성적인 덕을 지닌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모두 의지의 나약함을 악행의 근원으로 본다.
- 7. 갑, 을이 <문제 상황> 속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제 상황>

A는 월급을 받으면 필요하지 않은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거나,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구매를 자주 하여 며칠 만에 돈을 다 써버리기 일쑤다. A는 자신의 잘못된 소비 습관을 바꾸 어야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매번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 보기≻

- ㄱ. 소비로 인한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계산하여 행동하세요.
- ㄴ. 모든 소비 욕구를 없애는 것이 진정한 절제임을 명심하세요.
- ㄷ.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각하고 절제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세요.
- ㄹ. 필요한 경우에만 돈을 쓰는 행위를 실천하여 습관화하세요.

 값
 을

 ① 기
 나
 ② 기
 다

 ③ 나
 다
 ④ 나
 리

 ⑤ 다
 리

8.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사물을 밧줄로 묶거나 풀로 달라붙게 하는 것은 그 덕을 해치는 것이다. 말과 행동을 공손히 하는 인의(仁義)와 몸을 굽히는 예악(禮樂)은 인간 본래의 모습을 잃게 하는 것이다. 인의를 풀이나 밧줄처럼 줄줄이 늘어놓는 것은 천하를 미혹시킬 뿐이다.

- ① 지속적인 수양으로 본성을 교화해야 하는가?
- ② 마음을 깨끗이 하여 분별적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 ③ 감각적 경험을 진리 인식의 근원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④ 절대적 진리를 기준으로 만물의 우열을 가려야 하는가?
- ⑤ 외물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하는가?

9.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완성하고자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앎과 행위가 함께 함은 마치 눈이 발 없이 다닐 수 없 고, 발이 눈 없이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선후를 따지면 앎이 앞서고, 경중을 따지면 행위가 중요하다. (가) 을: 앎은 행위의 시작이고 행위는 앎의 완성이다. 참된 앎은 행위의 근거이니,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앎이 라 할 수 없다. 앎과 행위는 본래 하나이다. ่ 글: 출발 조건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판단 내용 --ま: 판단 방향]: 사상가의 입장 Α 예 (나) 아니요 С В 예 예 갑의 입장 을의 입장

- ① A: 마음[心]이 곧 이치[理]인가?
- ② B: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하는가?
- ③ B: 인간은 선천적으로 양지(良知)를 지니는가?
- ④ C: 격물(格物)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인가?
- ⑤ C: 마음 밖의 이치를 탐구하여 참된 앎을 완성해야 하는가?

10.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인간에게 진리라는 것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지니게 되는 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다. 이러한 신에 대한 사랑이 바로 주 관성이며, 주관성이 진리가 된다.
- 을: 인간은 주체적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주체성이 인간을 존엄한 것으로 만든다. 인간 은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내던지는 존재이다.

─ 보기 ≻

- ㄱ. 주체적 결단과 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 ㄴ. 추상적인 본질보다 구체적인 실존을 중시한다.
- ㄷ. 이성적 사유를 통한 진리의 상대성 극복을 강조한다.
- ㄹ.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스스로 개척하는 삶을 중시한다.
- ① 7, 6 ② 7, 6 ③ 6, 6 ④ 6, 7 ⑤ 6, 7

11. 그림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데아의 세계가 참된 세계입니다. 이데아는 감각적으로 경험될수 없으며 이성을 통해서만 파악될수 있는 영원불변한 것입니다.

영원불변한 이데아는 신의 정신 안에 존재합니다. 신은 이성적 인 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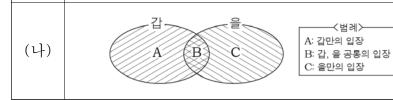
갑



- ① 갑은 선의 기준을 시민들의 합의의 산물로 본다.
- ② 갑은 진리의 근거를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이성보다 신앙을 통해서 최고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덕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모두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
- 12.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 (나) 그러면 시장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실시하라
 - ②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하라
 - ③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라
 - ④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 ⑤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하여 분배의 효율성을 추구하라
- 13.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 갑: 물에 동서(東西)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도 선 함과 선하지 않음의 구분이 없다.
 - 을: 물은 동서의 구분이 없지만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다.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 병: 물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다툼이 없이 만물을 이롭게 한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 ① 갑은 선악을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고 본다.
 - ② 을은 인간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본다.
 - ③ 병은 예(禮)와 같은 규범이 소박한 자연성을 해친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선한 삶을 살기 위해 후천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⑤ 을, 병은 시비(是非)를 분별하지 않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 14.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옳은 행위는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이다. 행복의 양이 클수록 그 행위의 가치는 더욱 크며, 행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그 행위는 더욱더 가치 있는 행위가 된다.
 - 을: 옳은 행위는 오직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이다.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도출된 도덕 원리에 따라 행위 하는 것이며, 의무가 문제가 될 때는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 ① 쾌락을 추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의무이다.
 - ② 선악 판단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 ③ 행복은 의무의 준수를 통해 얻어질 수 없다.
 - ④ 도덕은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 ⑤ 개인과 사회 전체의 행복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 15.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 모두 이(理)와 기(氣)를 벗어나지 않지만, 그 유래하는 바로 말미암아 어느 것은 이이고, 어느 것은 기라고 말할 수 있다.
 - 을: 정(情)은 하나인데 사단이다 칠정이다 말하는 것은, 오로지 이만을 말할 때와 기를 겸하여 말할 때가 다르기 때문이다.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 보기 >--

- ¬. A: 사단은 마음속에 사덕이 존재함을 알게 해주는 단서이다.
- L. B: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
- c. B: 순선한 사단은 만물의 원리인 이가 발하는 것이다.
- ㄹ. C: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 17, 27, 5 27, 5 27, 2

(가)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16.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개인의 감정은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② 행위자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인격 함양에 있어 공동체적 가치만을 중시하고 있다.
- ④ 각자의 선한 품성을 강조하면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
- 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도덕 원리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 **1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한울님을 믿으면 조화가 저절로 얻어지고, 한울님을 길이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깨달아진다.
 - 을: 일원(一圓)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일원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해야, 일원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합치된다.

- ㄱ.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의 철폐를 강조한다.
- ㄴ. 민생 안정을 위해 서양 종교의 확산을 주장한다.
- ㄷ. 수행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 ㄹ. 현세에서는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① 7, L ② 7, E ③ L, E ④ L, E ⑤ E, E
- 1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갑: 인간이 추구하는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다. 즐거운 삶을 위해 몸의 고통과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인 동요가 없는 상태[ataraxia]를 추구해야 한다.
 - 을: 인간은 우주적 인과 관계와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이성[logos] 이외에 어떤 것에도 주목하지 말고 자신을 이끌어야 한다.
 - ① 욕구의 완전한 충족이 삶의 목적인가?
 - ② 삶의 어떠한 고통도 감내해야만 하는가?
 - ③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④ 인간의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 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적인 삶을 중시해야 하는가?

19. (가) 사상의 입장에서는 긍정, (나) 사상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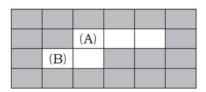
(가) 생산은 인간의 필요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획은 개인의 개성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는 자유와 계획을 동시에 주장하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생산은 사회 전체에 의하여 운영되어야한다. 사적소유는 폐지되어야하고, 대신 모든 생산수단의 공동이용과 공동의합의에 의한 생산물의 분배, 즉 재산의공유가 이루어져야한다.

- ① 급진적 사회 개혁을 위한 폭력 혁명을 거부하는가?
- ② 계급 없는 평등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가?
- ③ 인류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보는가?
- ④ 이상 사회에서 국가는 소멸되어야 하는가?
- ⑤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가?

20.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 퍼즐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기질의 성(性)이 기호(嗜好)로써 이름을 얻었으면, 천명의 성도 기호로써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기질의 성은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는 것이며, 천명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가로 열쇠]

(나)

(A):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의 불교 용어

(B): 노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며 도(道)와 덕(德)에 관한 내용이 81장으로 이루어진 책. ○○경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의 이치이다.
- ②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 ③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해치는 인위적인 규범이다.
- ④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 ⑤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천적인 마음의 능력이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